

모둠	1	분임장	김종호	서기명	전대욱
----	---	-----	-----	-----	-----

주제 1. 센터의 역할,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, 민과 민의 소통과 거버넌스

내용

-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경험은? 타 마을공동체와 집담회 등 네트워킹 활동에 지원을 받음. 활동가가 부족해서 퇴근 후 모임을 갖기 때문에 큰 지원은 필요가 없었고, 정산 등 관리과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.
- 아파트의 경우 임대위의 허락을 받아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, 현재 임대위와 마을공동체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. 임대위와의 이러한 갈등이나 권한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. 임대위가 건강한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나, 대부분의 임대위가 그렇지 않음.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그러한 건강성을 유지해야 함
-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조직이지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발굴이 오히려 쉬울 수 있음. 특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자발성이라는 동기 자체가 오히려 모호하고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함. 결과적으로 마을의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시민성 교육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
- 주민의 필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, 이러한 필요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함. 실제로 성미산의 사례 등은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찾아낼 수 있었음. 생협 사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
- 실제로 마을 현장에서는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고,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관변단체 인사들이 존재함. 실제로 마을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연젠가 조우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. 오히려 가볍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
- 사람을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함. 자원이라기 보다는 필요나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을이라고 생각함. 사람들이 모임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활성화와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함
-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면 굳이 지속가능할 필요는 없는데, 굳이 억지로 지속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? 물론 지속가능성은 각자의 몫이라고 보는데, 그런데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는 다양한 공동체가 일어나고 활성화되기 위해 공유해야 할 자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함.
-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, 마을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맥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함. 즉 마을공동체는 주거 등 생활공동체나 혹은 기호공동체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,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기에, 지역재단 등은 필요하나 제도화 등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
- 주민들에게 활동원칙과 기준이라는 경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,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.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함
- 주민들간 세대간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들이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, 이러한 활동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

정리 (분임장 정리)

- 실제 경험속에서의 우려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지속
지원에 의해서 지속가능한지, 공동체성은 무엇인지,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
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함

기타 이명주(성서공동체 **FM PD**)

한호승(주거생활공동체 내가그린우리집)

전대욱(한국지역진흥재단)

박종하(낭독협동조합준비모임 위원)

장준배(나눔과비전 대구경북본부)

김종호(서울마을지원센터)

최지혜(영남일보 시민기자단)

김지현(반야월공동체살림)

이영화(반야월공동체살림)